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희 수*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남부지역 3개 도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 8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수준, 학교적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둘째, 상태불안은 학교적응에 대하여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보였고 셋째, 가정폭력 수준과 학교적응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의 하위척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직접 경험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불안수준을 낮추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가정폭력, 불안, 학교적응

* 중앙교육과학연구소 소장, 혜천대학 겸임교수

I. 서론

우리나라도 1980년 이후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핵가족화 물결 속에서 가족구성원이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갖는 다양한 경험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더욱 의미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일찍이 발달심리학자들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이 개인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로 간주해 왔다. 이들 과제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을 의미한다.(김희수, 2004b, 2004c).

아동 초기에 시작하여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발달과제는 가족구성원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가정과 함께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를테면,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가정과 학교는 다른 사회적 환경보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적·공간적 활동무대이며, 상호 영향력의 관계에 있다. 가정은 학교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심리사회적 수행기준을 관찰하고 본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신의 욕구나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가정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 언론이나 매체들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문제는 사회문제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현실로 옮겨지는 사회적 관점, 가정의 의사소통 자체를 폭력으로 생각하는 인지적 관점,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미숙에서 오는 정신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청소년들

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상시 불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증대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김희수, 2003). 흔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안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은 자기존중감을 상실하거나, 학습 관련 집중력이 떨어지며, 대인 기피현상과 함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Birch, S. H., & Ladd, G. W., 1997),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데, 특히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등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Baker, R. W., & Siryk, B., 1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아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증대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를 다소 소홀히 다룬 점이 적지 않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정폭력과 학교적응 혹은 사회적응 등의 변인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심리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청소년시기에 내재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인지적,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을 조금은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가정폭력 수준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가정폭력과 관련된 청소년의 불안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가정폭력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일반적으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혹은 유기와 방임 등을 총괄한다(백옥현·손현규, 2004, 재인용).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 발생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김희수, 2003). 폭력에 대한 공포감과 낮은 자기존중감,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부정적인 정서나 신체적 긴장상태)과 학습된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한다.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의 유형은 청소년이 ‘목격하는 가정폭력’과 직접 ‘경험하는 가정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남두, 2001). 청소년이 목격하는 가정폭력은 주로 부모간의 폭력이고, 직접 경험하는 폭력은 주로 청소년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언어학대, 성학대)나 방임과 관련된다. 또한, 가정폭력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욕설과 같이 위협을 주는 공격적 폭력, 직접 가격이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신체적 폭력 등으로 분류한다(백옥현·손현규,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가정폭력 유형을 종합하여 ‘목격한 가정폭력’과 ‘경험한 가정폭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두 하위영역은 언어폭력, 공격폭력, 신체폭력으로 다시 대별하였다. 언어폭력은 언어적 학대를 의미하며, 목격한 언어폭력은 ‘부모간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언어폭력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언어폭력’을 말한다. 공격폭력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물리적 접촉은 없었으나 위협적인 학대를 의미하며, 목격한

공격폭력은 ‘부모간의 공격폭력’을, 경험한 공격폭력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공격폭력’을 말한다. 신체폭력은 직접적인 물리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며, 목격한 신체폭력은 ‘부모간의 신체폭력’을, 경험한 신체폭력은 ‘청소년에게 부모가 직접 가하는 신체적 폭력’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현실로 옮겨지는 사회적 관점, 가정의 의사소통 자체를 폭력으로 생각하는 인지적 관점,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미숙에서 오는 정신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청소년들에게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상시 불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2. 불안

최근 청소년들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가정폭력임을 여러 언론이나 매체들을 통해 접하여 왔다.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떠나 사회의 문제이며, 특히 학령기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바로우(Barlow, D. H, 1988)에 의하면, ‘불안’(anxiety)이란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행이 장차 닥칠 것을 예측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나 신체적 긴장을 느끼는 기분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스피버그(Spielberger, C. D., 1972)는 불안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상황적이며 일시적인 ‘상태불안’(state-anxiety)을, 다른 하나는 안정적이고 개인차가 있는 ‘특성불안’(trait-anxiety)으로 개념화 하였다.

상태불안이란, 특정 시점에서의 지각된 염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며 자율신경계통의 각성으로 특징지어진다. 특성불안이란, 유기체의 비교적 안정된 특성으로 간주되며 성격상의 불안상태로 나타난다. 불안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정감이나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

육태도, 부모행동, 과다하거나 과소한 책임부여,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태도, 안전기지(secure base)로서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 등 부모-자녀 간의 갈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김희수, 2004a; 백옥현·손현규, 2004; Randolph, M., & Conkle, L., 1993).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가장 먼저 가정으로부터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3. 학교적응

인간은 사회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이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적응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학교적응’(school-related adjustments)이란, 학령기의 학생들이 학교 환경이라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심리사회적으로 안정과 지속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적응과 부적응의 형태는 학령기라는 환경적 경험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교적응은 학교에서의 심리사회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들(Baker, R. W., & Siryk, B., 1984, 1984; Birch, S. H., & Ladd, G. W., 1997)이 그 예이다.

버치와 나드(Birch, S. H., & Ladd, G. W., 1997))는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은 학교적응의 수업뿐 아니라 학교학습 태도, 협동적 참여, 자발성을 포함시켰다. 학교학습 태도는 아동들이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와 관련되고, 협동적 참여는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수용하고, 교실 규칙을 지키고 책임지는 행동과 관련된다. 자발성은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독립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베이커와 시릭(Baker, R. W., & Siryk, B., 1984)은 학교적응 요인으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학교 소속감으로 분류하였다. 학문적 적응은 학업적 공부에 대한 태도, 학업적 노력, 학과목의 만족 등에 해당되고,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 활동 참여, 또래관계, 학교의 사

회적 환경 만족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적-정서적 적응은 심리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되고, 학교 소속감은 학교환경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유윤희(1995)는 학교적응에 대한 하위요인들을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분하였는데, 교사관계란 교사와 학생간의 애착 혹은 인간관계를 말하며, 또래관계는 또래집단과 원활한 교우관계인, 애착, 우정, 협동심, 이해심 등을 말하며, 학교수업은 교실 안에서의 수업분위기, 학습동기, 과제해결 능력, 수업 참여의 만족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규칙은 학교와 학급에서 지켜야 할 제반 규정과 제도, 지침 등을 총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윤희의 학교적응 개념을 적용하였다.

4. 가정폭력 수준, 불안, 학교적응의 관계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학교적응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상관이 있었다.

스필버그(Spielberger, C. D, 1972)에 의하면, 불안은 자극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위험상황의 객관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외적 자극에 위협적이나 혹은 비위협적이나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에 따라 불안수준이 달라진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가정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를 닮은 교사의 모습, 말투, 행동 등에서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에서처럼 좋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불안이 발생하게 되며, 특성불안보다는 상태불안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김경희(1995)의 연구에서는 폭력자를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나 목소리, 옷차림 등을 접하게 되면, 공포심을 느낀다고 말해 이러한 가정을

뒤틀림 해주고 있다(백옥현·손현규, 2004).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안상태에 놓이게 된 청소년은 자기존중감을 상실하거나, 학습 관련 집중력이 떨어지며, 대인 기피현상과 함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Birch, S. H., & Ladd, G. W., 1997). 가정폭력은 청소년들을 불안상태에 놓이게 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백일몽에 빠지게 하며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Cohn, D. A., Patteson, D. J., & Christopoulos, C., 1991; Osofsky, C., 1995).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Baker, R. W., & Siryk, B., 1984). 또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덕숙, 2002; 박봉호, 2001; 백옥현·손현규, 2004; McGee, C., 2001; Sroufe, L. A., 198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A시, O시, P시의 6개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 중 수집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803(남학생 411, 여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표집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표집 수

구분	1학년		2학년		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A시	79	70	43	55	247
O시	32	31	82	95	240
P시	78	125	60	53	316
계	189	226	185	203	803

2. 검사도구

1) 가정폭력수준검사

가정폭력수준 검사는 스트라우스(Straus, M. A., 1979)가 제작한 갈등척략척도(CTS: Conflict Tactics Scale)를 바탕으로 송남두(2000)가 제작한 것을 연구자가 청소년들의 수준에 알맞도록 문장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이 ‘경험한 가정폭력’(14문항)과 청소년이 ‘목격한 가정폭력’(14문항)의 두 부분으로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경험한 가정폭력의 문항으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는다’, 목격한 가정폭력으로는 ‘나는 부모님끼리 욕설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였다’ 등이다. 이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점에서부터 ‘자주 있다’의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폭력이 심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가정폭력 지각수준 척도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불안수준검사

불안수준 검사로는 스피이버거(Spielberger, C. D., 1972)의 상태-특성 불

안 검사(STAI: States-Trait Anxiety Instrument)를 김정택(1978)이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 10, 특성불안 10,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상태불안 문항으로는 ‘나는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애쓴다’, 특성불안 문항으로는 ‘나는 당황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등이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할 수 있는 Likert방식의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통해 분석한 불안척도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가정폭력 지각수준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경험한 가정폭력	언어적 폭력행동	1, 2, 3, 4	4	.69
	공격적 폭력행동	7, 9, 10, 11	4	.77
	신체적 폭력행동	5, 6, 8, 12, 13, 14	6	.72
목격한 가정폭력	언어적 폭력행동	1, 2, 3, 4	4	.73
	공격적 폭력행동	7, 9, 10, 11	4	.68
	신체적 폭력행동	5, 6, 8, 12, 13, 14	6	.79
가정폭력(전체)			28	.82

<표 3> 불안수준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상태불안	1, 2, 3, 8, 10, 11, 16, 17, 19, 20	10	.83
특성불안	4, 5, 6, 7, 9, 12, 13, 14, 15, 18	10	.87
불안(전체)		20	.85

3) 학교적응검사

학교적응검사는 유윤희(1995)가 제작한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적용하여 재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질문지는 청소년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각 하위요인별 8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교사관계의 문항으로는 ‘나는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래관계의 문항으로는 ‘나는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가 많다’, 학교수업 문항으로는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학교규칙 문항으로는 ‘나는 선생님이 이야기 하는 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학교적응 하위척도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교사관계	1, 5, 12, 18, 22, 25, 30, 31	8	.69
또래관계	3, 6, 7, 11, 23, 27, 28, 29	8	.85
학교수업	4, 8, 10, 14, 17, 24, 26, 32	8	.77
학교규칙	2, 9, 13, 15, 16, 19, 20, 21	8	.82
학교생활적응(전체)		32	.79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5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間に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교장 선생님에게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여 담임교

사의 도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10.0 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도분석, 중다회귀분석(Enter 방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폭력 수준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Enter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폭력 총점과 불안 총점의 중다상관 계수는 $R=.391$ 로서 불안총점 변량의 21.2%를 가정폭력 하위변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하위변인에 대한 예언력을 분석한 결과는 ‘경험한 공격폭력’이 $\beta=.492(t=2.346, p < .01)$, ‘경험한 신체폭력’이 $\beta=.313(t=2.041, p < .05)$ 의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험한 공격폭력과 신체폭력이 청소년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는 주 요인임을 의미한다.

<표 5> 불안에 대한 가정폭력 지각수준의 하위변인 회귀분석표

변인	B	β	t
경험한 언어폭력	-1.245	-.311	-.920
경험한 공격폭력	4.773	.492	2.346**
경험한 신체폭력	3.824	.313	2.041*
목격한 언어폭력	-1.561	-3.306	-1.126
목격한 공격폭력	3.234	.283	1.478
목격한 신체폭력	5.649	.272	1.301
R	.391		
F값	10.437***		
R ²	.212		

* $p < .05$, ** $p < .01$, *** $p < .001$

2. 불안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불안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nter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 총점과 학교적응 총점의 중다상관 계수는 $R=-.428$ 으로서 학교적응 총점변량의 19.2%를 불안의 하위변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하위변인들 중에서 상태불안이 $\beta=-.396$ 로서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 보였다($t=-4.011$, $p<.05$). 이를 볼 때,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상태불안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6> 학교적응에 대한 불안의 하위변인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t
상태불안	-1.045	-.396	-4.011*
특성불안	-.026	-.073	-.435
R	-.428		
F값	31.167***		
R ²	.192		

* $p<.05$, ** $p<.01$, *** $p<.001$

<표>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내 보면, 불안의 하위변인들은 학교적응 총점변량의 17.9%($R=-.435$), 교사적응 총점변량의 16.2%($R=-.420$), 또래관계 총점변량의 15.8%($R=-.393$), 학교수업 총점변량의 16.5%($R=-.429$), 학교규칙 총점변량의 18.1%($R=-.472$)를 각각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변인의 예언력을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은 $\beta=-.312$ ($t=-3.427$, $p<.01$), 교사관계 $\beta=-.376$ ($t=-3.731$, $p<.01$), 또래관계 $\beta=-.303$ ($t=-3.024$, $p<.01$), 학교수업

$\beta = -.348(t = -3.523, p < .001)$, 학교규칙 $\beta = -.385(t = -3.846, p < .001)$ 에서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 보였으나, 특성불안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예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폭력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nter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 지각수준과 학교적응 총점의 중다상관 계수는 $R = .459$ 으로서 가정폭력이 학교적응 총점변량의 24.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하위변인의 예언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험한 공격폭력’이 $\beta = -.814(t = -3.121, p < .01)$ 을, ‘경험한 신체적 폭력’이 $\beta = -.520(t = -2.832, p < .01)$ 로서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중에서도 경험한 공격폭력과 신체폭력이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표 7> 학교적응에 대한 가정폭력 지각수준의 하위변인 회귀분석결과

변인	B	β	t
경험한 언어폭력	3.138	.465	.832
경험한 공격폭력	-6.947	-.814	-3.121**
경험한 신체폭력	-6.421	-.520	-2.832**
목격한 언어폭력	.766	.501	.175
목격한 공격폭력	-1.864	-.204	-.193
목격한 신체폭력	-1.328	-.227	-.165
R	.459		
F값	11.449***		
R ²	.246		

* $p < .05$, ** $p < .01$, *** $p < .001$

이들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폭력의 하위변인들은 학교적응 총점변량의 20.5%($R^2=.469$), 교사적응 총점변량의 20.3%($R^2=.452$), 또래관계 총점변량의 16.7%($R^2=.304$), 학교수업 총점변량의 18.2%($R^2=.438$), 학교규칙 총점변량의 17.6%($R^2=.421$)를 각각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변인의 예언력을 분석한 결과, 경험한 공격폭력은 $\beta=-.587(t=-2.842, p<.01)$, 교사관계 $\beta=-.602(t=-3.081, p<.01)$, 학교수업 $\beta=-.592(t=-2.964, p<.01)$, 학교규칙 $\beta=-.573(t=-2.647, p<.05)$ 에서 학교적응의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 보였고, 또한, 경험한 신체폭력은 $\beta=-.428(t=-2.301, p<.01)$, 교사관계 $\beta=-.420(t=-2.243, p<.01)$, 또래관계 $\beta=-.439(t=-2.387, p<.05)$, 학교수업 $\beta=-.395(t=-2.014, p<.05)$, 학교규칙 $\beta=-.408(t=-2.106, p<.01)$ 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 보였다. 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8> 불안과 학교적응에 대한 가정폭력 지각수준의 회귀분석결과

예언변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불안 총점	교사 관계	또래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학교적 응총점
경험한 언어폭력	-.212	-.078	-.230	.625	.086	.473	.849	.854
경험한 공격폭력	.525**	.302	.542**	-.602**	-.249	-.592**	-.573*	-.592**
경험한 신체폭력	.633**	.189	.636**	-.420**	-.439**	-.395*	-.408*	-.428**
목격한 언어폭력	-.229	-.093	-.232	.083	.011	.140	.194	.128
목격한 공격폭력	.421	.227	.461	-.543	-.570	-.591	-.085	-.423
목격한 신체폭력	.537	.245	.542	-.353	-.421	-.269	-.387	-.396

* $p<.05$, ** $p<.01$, *** $p<.001$

<표 9> 학교적응에 대한 불안의 회귀분석결과

예언변인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적응 총점
상태불안	-.376**	-.303**	-.348***	-.385***	-.312**
특성불안	-.129	.054	-.103	.035	-.078

* $p<.05$, ** $p<.01$, *** $p<.001$

<표 8>,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으며, 가정폭력 수준과 학교적응간에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가정폭력 하위변인의 예언력을 보면, ‘경험한 공격폭력’과 ‘경험한 신체폭력’만이 불안 및 학교적응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언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하위변인들은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예언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적응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가정폭력 수준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정폭력 수준이 불안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 연구결과 중에서 불안에 대하여 가정폭력의 하위변인들이 갖는 유의미한 수준의 예언력은 ‘경험한 공격폭력’과 ‘경험한 신체폭력’에서 나타났고, 불안 중에서는 ‘상태불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의 상기 두 가지 하위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상태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가정폭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박덕숙, 2002; 박인아, 1999; 백옥현·손현규, 2004)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언어적 폭력의 경험빈도는 자료분석 대상자 803명 중에서 736명(81.4%)이라는 높은 빈도를 보여주면서도 불안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험하거나 목격한 언어폭력과 불안’과의 관계가 부적 상관(β 값이 -값을 갖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같은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가정문화가 유아기부터 부모의 욕설, 폭력적인 언어에 아동들이 익숙해져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질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의 높은 신뢰도를 고려해 볼 때, 전자의 가능성일 경우가 높다. 이 점에서 청소년기의 가정폭력에 대한 지각수준이 언어폭력 수준을 넘어 직접적인 공격행동이나 신체적 피해로부터 불안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인식적 관점이 우려할만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불안이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태불안과 학교적응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태불안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언력을 갖는데 반해, 특성불안은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예언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상태불안과 학교적응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백옥현과 손현규(2004)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학교적응이 개인의 어떤 특질이나 특성에서 비롯된 불안보다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상태불안으로 볼 수 있으

며, 학교규칙, 교사관계, 학교수업, 또래관계 순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폭력은 곧바로 학교적응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인간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지각수준과 학교적응 총점의 중다상관 계수는 $R=-.459$ 로서 가정폭력이 학교적응 총점변량의 24.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하위변인의 예언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험한 공격폭력’과 ‘경험한 신체적 폭력’에서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가정폭력 중에서도 경험한 공격폭력과 신체폭력이 학교생활 하위척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험한 언어폭력’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예언력이 없다는 백옥현과 신현규(2004)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하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우리의 가정문화가 부모의 위협적인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어 등으로 일상화되어 있고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백옥현과 신현규(2004)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상태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

셋째, 가정폭력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경험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들의 상태불안과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

이기 위하여 상태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 도시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에서 남녀 학생 803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엔 그 한계가 있으며, 연구대상의 자료분석 또한 청소년의 공통점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성별이나 연령, 가정폭력수준의 집단별 차이는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대상으로 폭넓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스트라우스(Straus, M. A., 1979)의 척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수준을 재는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결과 통계적 값과 이론적인 측면이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된 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검사도구로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며, 필요시 새로운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불안감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및 상담적 개입이 피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가해자나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불안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2004a).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제4권 제2호, pp.113-127
- 김희수(2004b).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93-115.
- 김희수(2004c).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2집 제2호, pp.501-518.
- 김희수(2003). 신교육심리학. 서울: 한울출판사.
- 문은식(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41권 제3호, pp.349-369.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덕숙(2002). 부모의 학대유형과 불안, 공격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봉호(2001). 가정폭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옥현·손현수(2004).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2호, pp.181-193.
- 송남두(2000). 가정폭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유윤희(1995).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1998). 발달정신병리학. 서울: 적성출판사.

홍정기(1995). 국민학생의 상황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insworth, M. D. S.(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Vol. 40 No.3, pp.969-1025.

Baker, R. W., and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pp.179-189.

Barlow, D. H.(1988). Anxiety and its disorders. NY: Guilford Press.

Birch, S. H., and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pp.61-79.

Bowlby, J.(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Cohn, D. A.(1999).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 years 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1, pp.151-162.

Cohn, D. A., Patteson, D. J., and Christopoulos, C.(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8, pp.313-346.

Gardner, H.(198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practice. NY: Basic Books.

McGee, C.(2001). Child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

Osofsky, C.(1995). The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on young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s*, Vol. 50 No.9, pp.782-788.

Randolf, M., and Conkle, L.(1993). Behavior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 of children who witness parental violence. *Family Violence and Sexual Assault Bulletin*, Vol. 9 No.2, pp.23-27.
- Spielberger, C. D.(1972). Anxiety: Current Trends,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pp.136-149.
- Sroufe, L. A.(1983). Infant caregiver attachments and patterns of adaption in preschool: The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41-81.
- Sroufe, L. A., and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W. Hartup &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pp.51-71). Hillsdale, NJ: Erlbaum.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 pp.75-88.

ABSTRACT

The Effect of Their Anxiety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 on the Level of Domestic Violence Perceived by Adolescents

Kim, He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ir anxie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s on the level of domestic violence perceived by adolescents.

For these purpose, the magnitude of domestic violence, anxie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s were measured for 803 adolescents(411 boys, 392 girls). Three kinds of measurement were used for this study: 1) The Domestic Violence Scale, 2)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3) The School-related Adjustments Scale. As a method of statistical analysis, the SPSS(Win 10.0 ver.) program was used in this study.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ual level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nxiety of adolescents. Secondly,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nxiety and the school -related adjustments of adolescents.

* Jungang Institute for Research of Educational Science, Hyecheon College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ual level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school-related adjustments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 domestic violence, school-related adjustments, anxiety

투고일 : 4월 28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